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가격의 화요일: CPI가 다시 매긴 돈의 값, 서울이 되찾은 반등 — 그리고 앤트로픽의 1.4조 달러

The Pricing Tuesday: What October Inflation Did to the Cost of Money, the Rally Seoul Won Back, and Anthropic's $1.4 Trillion Ask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9일부터 11일 아침까지 이어진 글로벌 시장·거시·산업·교육 현장의 변화를 창업가, 경영진, 엔지니어, 투자자, HR 담당자가 함께 읽도록 구조화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정부 통계, 거래소·시장 데이터, 학술 문헌, 주요 언론 보도)로 검증했고 추정과 확정 수치를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글보다 도표가 먼저 말하고, 텍스트는 그 해설을 돕습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11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11. (수) Wednesday
권호 Volume	VOL. 2026-11-11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09 ~ 11. 11 (직전 3일 + 당일 조간)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0.4%
미 10월 CPI 전월비 (예상 0.3%)
근원지수도 0.3%로 예상 상회

+4.39%
코스피 5,239.13 · 4거래일 만 반등
외국인 8거래일 만 순매수 전환

-5.5%
엔비디아 11-10 하루 낙폭
이사회 독립 조사 착수, 주간 누적 -10%

$1.404조
앤트로픽 IPO 최대 밸류에이션
가격밴드 $70~78, 11-19 상장 예정

한 문장으로: 시장은 AI를 의심하기보다 AI의 값을 다시 매기고 있다

같은 주에 돈의 값(금리)과 허가의 값(인허가·거버넌스)이 함께 오르며, 자본은 '방향'이 아니라 '가격'을 재협상하고 있다

+19.3bp
미 2년물 4.74% (11-10). CPI 서프라이즈 후 연준 12월 50bp 인상 확률 급등 — 4월 이후 최대 단일 상승

5,239.13
코스피 11-10 종가 +4.39%. 매수 사이드카 발동, 외국인 3,587억 순매수로 8거래일 만 매수 복귀

$81B
앤트로픽 10월 말 기준 연간화 매출 런레이트. 9월말 $71B에서 한 달 만에 $10B 증가

77 vs 39
AI 역량 '중요' 인식 — 취준생 77.0% vs 기업 39.0% (한경협 200개사·500명 조사, 11-10)

1. 거시: '오래 더 높게'가 돌아온 하루

11-10 발표된 미 10월 CPI는 전월비 0.4%, 근원지수 0.3%로 예상(0.3%·0.2%)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는 "근원 0.3%면 12월 8~9일 회의에서 50bp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2년물은 19.3bp 뛰어 4.74%, 10년물은 12.8bp 오른 4.988%를 기록했습니다. 2월부터 이어진 유가 쇼크가 물가로 스며드는 데 8개월이 걸렸고, 이제 연준의 관심은 유가에서 **'AI가 밀어 올리는 노동·전력 비용'**으로 옮겨왔습니다. 애넥스 웨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 손이 이번 주를 요약했습니다. "새로운 연준 걱정은 유가가 아니라 배관공·전기기사의 인건비입니다."

2. 시장: 반등의 주인이 바뀌었다

11-09 뉴욕은 나스닥 +2.74%(25,253.14)로 반등했지만 주도주는 엔비디아(-4.27%)가 아니라 AMD(+13.26%)·브로드컴(+8.78%)이었고, SOX는 +6.86%로 7월 말 이후 최대 폭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1-10 서울은 그 반등을 받아 코스피 +4.39%(5,239.13), 코스닥 +4.48%(667.61)로 4거래일 만에 급락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3,587억 원 순매수로 복귀했고 기관도 4,980억 원을 순매했으며, 개인은 1조3,396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반등의 질을 가르는 것은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입니다 — 이날의 조합(외국인+기관 매수)은 지난주의 그것(개인 매수)보다 우위입니다.

3. 기업: 엔비디아의 리스크가 '지배구조'로 이동했다

엔비디아는 CEO 젠슨 황의 관계로 의심받는 인물과 관련한 외국정보기관 접촉 의혹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독립 조사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주가는 11-09 -4.27%, 11-10 -5.5%로 주간 누적 -10%를 기록했습니다. 4.5조 달러 기업의 리스크가 실적이 아니라 **사람과 지배구조**에서 터지는 것은 AI 산업의 성숙 신호이자 새로운 프리미엄 계산 항목입니다.

4. 사람: 신입의 사다리는 여전히 문제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감소했고, 한국은행은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8만5천 개 중 94%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기업 신입 공고는 1년 새 43% 줄었으며, 기업 70%는 신입에게 '검색·요약 수준'의 AI 역량만 기대하는 반면 취준생 54.8%는 '결과 검증·재설계'까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눈높이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5. 교육: 예산이 빠지고 현장이 움직인다

2027년 예산안에서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용 예산 30억 원이 전액 빠졌습니다(전자신문 11-09). 반면 현장은 움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AI 리터러시 가이드라인 20개 조문 해설집을 전 학교에 배포했고, 위버스브레인은 AI 튜터가 먼저 전화를 거는 영어 수업을 출시했습니다. 정책의 시간축(중장기 연구)과 현장의 시간축(즉시 도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1.13 코어위브 실적
AI 인프라 수요의 풍향계. 가이던스와 신규 계약 규모가 넥클라우드 전체의 할인율을 결정한다.

11.18~19 앤트로픽 상장
프론티어 AI 최초의 대형 상장. $2조 목표가 $1.4조로 내려온 이유를 시장이 답할 것이다.

12.08~09 FOMC
25bp냐 50bp냐. AI 인프라 자금조달 비용과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의 기준선이 여기서 정해진다.

한 문장 결론 이번 주의 병목은 'AI가 가능한가'가 아니라 **'AI가 값은 얼마인가'**다 — 돈의 값(금리), 허가의 값(규제·거버넌스), 부채의 값(크레딧 스프레드)이 동시에 재가격되는 구간에서, 원가 우위를 먼저 확보한 기업·학교·지역이 다음 사이클의 이익을 가져간다.

Executive Summary: The Week the Price of AI Was Re-Set

Money, permission and debt were repriced in the same week; capital is not doubting AI, it is renegotiating its price

Macro: "Higher for longer" returned for a day

October US CPI rose 0.4% month on month, with core at 0.3%, both above consensus (0.3% and 0.2%). Governor Waller said a 0.3% core print would push him to consider a 50-basis-point hike at the December 8-9 meeting. The two-year yield jumped 19.3bp to 4.74% and the ten-year rose 12.8bp to 4.988%. Eight months after the oil shock began, inflation has seeped from energy into core, and the Fed's new worry is the cost of hiring plumbers and electricians, not the price of oil.

Markets: the ownership of the rally changed

On 9 November the Nasdaq gained 2.74% to 25,253.14 while Nvidia fell 4.27%; AMD rose 13.26%, Broadcom 8.78%, and the 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6.86%, its best day since late July. On 10 November Seoul took the baton: the KOSPI closed up 4.39% at 5,239.13 and KOSDAQ up 4.48%, with foreign investors buying a net 358.7 billion won, their first net purchase in eight sessions, while institutions added 498 billion and retail sold 1.34 trillion won into the bounce.

Companies: Nvidia's risk moved from earnings to governance

Nvidia's board hired lawyers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reports that a woman linked to Chinese intelligence was connected to CEO Jensen Huang. The stock fell 4.27% on Monday and 5.5% on Tuesday, roughly 10% for the week. For a $4.5 trillion company, risk arriving through people and governance rather than earnings is a maturity signal, and a new line in every discount-rate model.

People and learning: the rung gap widened

Korea's youth employment fell for a 47th straight month; the Bank of Korea finds 94% of the 285,000 youth jobs lost over four years were in AI-exposed industries. Large-corporate entry-level postings fell 43% in a year. 70% of firms expect only basic AI literacy from new hires while 54.8% of job seekers believe verification and redesign skills are required. In education, the 2027 budget dropped the 3-billion-won national AI-education research centre while schools move ahead regardless.

Nov 13 — CoreWeave Q3
The neocloud barometer. Guidance and new contract volume reset the discount rate for the whole compute-leasing trade.

Nov 18-19 — Anthropic prices, lists
The first frontier-lab mega listing. Why $2tn became $1.4tn is the question the order book must answer.

Dec 8-9 — FOMC
25bp or 50bp. The baseline financing cost of AI infrastructure is set here.

I. 시장: 이틀의 대칭 — 미국에서 온 반등, 서울에서 완성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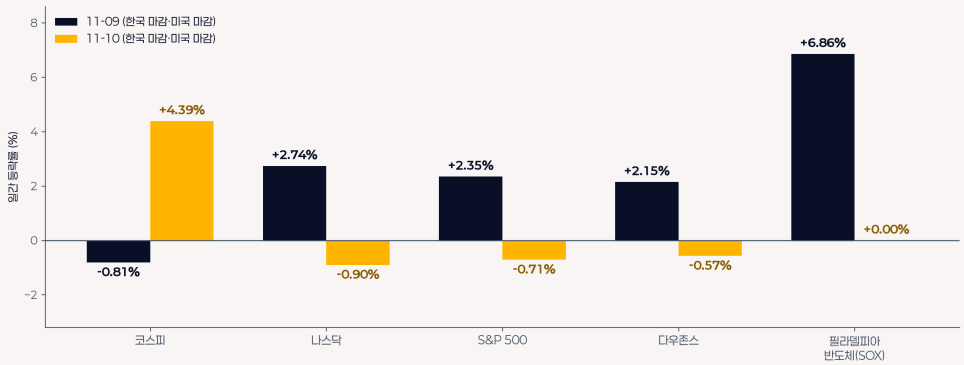
11-09 뉴욕(선행)과 11-10 서울(후행)의 등락률을 나란히 놓으면 반등의 '소유 구조'가 보인다

1.1 주요 지수 일간 등락률 Index daily moves, 9-10 Nov 2026

CONDERI DAILY INSIGHT | CHART 1

전날의 반등은 미국에서, 당일의 반등은 서울에서 — 방향이 바뀐 이틀

주요 지수 일간 등락률 (%). 한국은 11-09·11-10 종가, 미국은 11-09·11-10 종가



출처: 한국거래소·연합뉴스(11-10), Reuters·Investopedia·Axios(11-10). SOX 11-10은 보합(0.0% 근사)으로 표기. 미국 수치는 11-09·11-10 종가 기준.

[그림 1] 한국은 11-09 -0.81%(5,018.85)로 급락을 이어가다 11-10 +4.39%로 반전. 미국은 11-09 +2%대 반등 후 11-10 CPI로 되돌림. 출처: 한국거래소·연합뉴스·Reuters·Investopedia

해설: 같은 반등, 다른 주인

11-09 뉴욕 반등의 주력은 헤지펀드 리밸런싱 이후의 저가매수였고 엔비디아는 빠져 있었습니다. 11-10 서울 반등은 외국인(+3,587억)+기관(+4,980억)의 조합으로 완성됐습니다. 급락 때 개인이 받아낸 물량을 개인이 다시 팔고 기관이 받아 넘겼다는 뜻이며, **수급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간 반등은 지속 확률이 다르다**는 것이 증권가의 공통 해석입니다. 다만 하나증권은 "외국인 순매수 복귀는 최소 3개월 이후일 수 있다"는 진단을 유지하고 있어, 이날 3,587억을 추세 전환의 증거로 보기는 이릅니다.

수급 스코어카드 (11-10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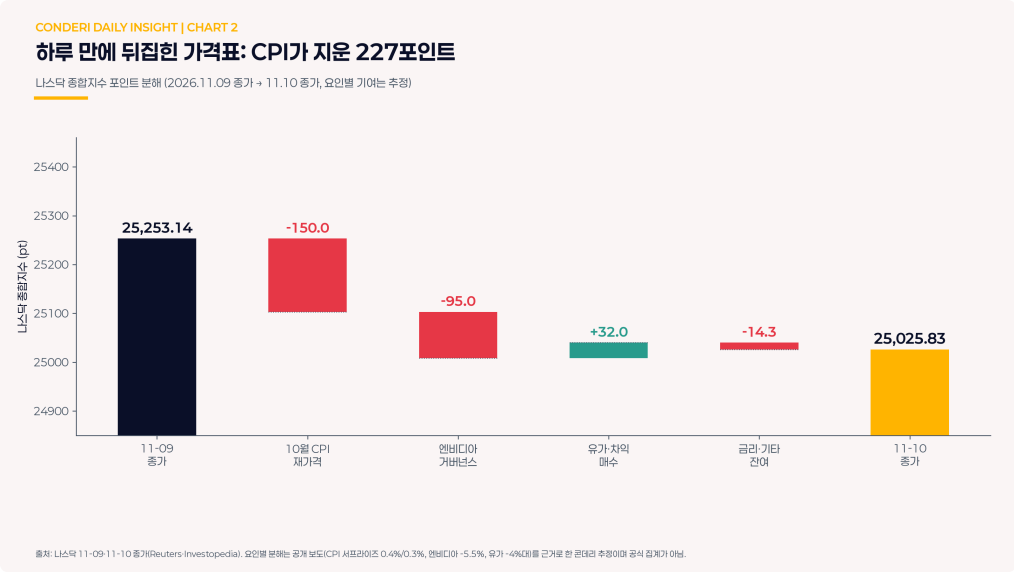


코스닥은 기관 +2,148억 순매수가 지수를 견인. 출처: 한국거래소(11-10)

II. 거시: CPI 서프라이즈와 50bp 확률 — 돈의 값이 오른 화요일

10월 CPI 0.4%/근원 0.3%는 '유가발 완화' 내러티브를 닫고, 12월 FOMC를 인상 관측으로 되돌렸다

2.1 나스닥 하루 낙폭 분해 Nasdaq single-day point decomposition (est.)



[그림 2] 나스닥 25,253.14 → 25,025.83 (-227.31pt, -0.90%). 요인별 분해는 콘데리 추정(공개 보도 근거). 출처: Reuters·Investopedia(11-10)

해설: 세 개의 가격표가 같은 날 갱신됐다

첫째, **돈의 값**. CPI 서프라이즈로 12월 50bp 인상 확률이 급등했고 2년물은 4.74%로 4월 '관세 난류' 이후 최대 단일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AI 인프라의 자금조달 비용 기준선이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둘째, **지배구조의 값**. 엔비디아 -5.5%. 이사회 독립 조사는 실적 서프라이즈로는 되돌릴 수 없는 프리미엄 할인 항목입니다. 셋째, **부채의 값**. 금리 상승은 2조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크레딧의 스프레드에 직결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갱신된 하루에 나스닥은 -0.90%로 마쳤고, 이는 **패닉이 아니라 재가격**이라는 뜻입니다.

10월 CPI 및 금리 스냅샷 (11-10)

지표	수치	전일 대비
CPI 전월비	0.4%	예상 0.3% 상회
근원 CPI	0.3%	예상 0.2% 상회
미 2년물	4.74%	+19.3bp
미 10년물	4.988%	+12.8bp

출처: 미 노동부·Reuters(11-10). 다음 관문은 11-13 코어위브 실적과 12-08~09 FOMC.

III. 테크: 엔비디아의 사람 리스크와 앤트로픽의 가격 협상

같은 날, 최대 기업의 지배구조와 최대 상장의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3.1 엔비디아: 실적이 아닌 사람에서 터진 리스크

젠슨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심 인물과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이사회는 외국정보기관의 접근 시도에 대한 독립 조사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보도 기준). 주가는 11-09 -4.27%($178.65), 11-10 -5.5%로 주간 누적 약 -10%. 다우 최대 낙폭 종목이 됐습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스캔들 자체가 아니라 **의사결정 집중도(4.5조 달러 회사의 단일점)**와 후계·거버넌스 불확실성입니다. 브로드컴(+4.0%)과 AMD(+1.0%)가 상대 강세인 것은 '엔비디아 대체 승자' 프레임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2 앤트로픽 IPO: 2조의 꿈, 1.4조의 현실

앤트로픽은 11-10 수정 공시에서 공모가 밴드를 주당 $70~78로 확정했습니다. 8억 2,500만 주(클래스 A) 공모로 최대 643.5억 달러를 조달하고, 완전희석 기준 최대 밸류에이션은 1.404조 달러입니다. 5월 조달 라운드의 9,650억 달러보다는 크게 위지만, 몇 달 전 보도된 목표치 2조 달러보다는 30% 낮습니다. 구글·엔비디아 등 7개 전략투자자가 의결권 없는 클래스 N 주식 260억 달러를 사모로 매입합니다(구글·엔비디아 각 100억 달러). 티커는 ANT, 11-18 가격 결정 후 11-19 나스닥 상장 예정입니다.

3.3 앤트로픽 공시 핵심 수치

항목	수치	비고
공모가 밴드	$70~78	825M주 클래스 A
공모 규모	최대 $64.35B	언더라이터 옵션 별도
사모 배정	$26B	AMD·브로드컴·구글·마이크론·MS·엔비디아·TSMC
완전희석 밸류	최대 $1.404조	5월 $965B → 상향 / 목표 $2조 → 하향
매출 런레이트	$81B (10월말)	9월말 $71B, 분기(Q3) 매출 $17B
9개월 순손실	$104B	컴퓨트·인프라 약정 $900.9B
현성	약 $132B	현금 및 단기투자
지배구조	창업자 클래스 F	의결권 50.1% + 장기이익신탁 이사 과반

출처: 앤트로픽 수정 S-1 공시(TechCrunch·Bloomberg Law·Fortune 보도, 11-10)

3.4 시사점: 상장은 'AI 붐의 국제 시험대'가 된다

앤트로픽의 밴드 하향($2조 → $1.4조)은 프론티어 모델 기업의 할인율이 시장과 발행자 사이에서 처음으로 **실제 협상**됐다는 뜻입니다. 순손실 $104B와 약정 $900.9B가 공시된 채로 상장하는 것은, 매출 성장($71B → $81B, 한 달 +$10B)이 손실 속도를 이길 수 있는지의 공개 베팅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에게 이 상장은 두 가지 가격표를 줍니다. 모델 기업의 매출 배수와, 하드웨어 파트너(AMD·브로드컴·TSMC)의 전략적 사모 참여 프리미엄입니다.

IV. 스타트업: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하고, 소셜벤처가 IR대에 선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직접투자 선언과 지역·임팩트 투자의 동시 확장이 같은 날에 왔다

4.1 엔비디아, 국내 스타트업 4곳 직접 투자

엔비디아는 11-09 'AI 데이 서울 2026'에서 포인트투테크놀로지(데이터센터 무선 인터커넥트), 업스테이지(LLM), 모티프테크놀로지스(LLM), 리얼월드(로봇 파운데이션모델) 등 국내 스타트업 4곳에 **엔비디아 명의의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액셀러레이터(엔벤처스)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라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업스테이지는 이어 11-10, 진행 중인 시리즈C 2차 라운드에 엔비디아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AMD에 이은 세 번째 빅테크 투자자이며, 시리즈C 1차(4월, 1,800억 원)에서 이미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4.2 국내 투자 유치 데스크의 하루

주체	이벤트 (11-09~10)	규모·비고
트리나	파트너스라운지 투자 유치	1억 5,000만 원 · 팀용 AI 공유 플랫폼
업스테이지	시리즈C 2차 엔비디아 참여 예정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지
김해서 창공 PLUS	경남 지역펀드 매칭 행사	8개사 총 61억 원 유치
임팩트스타 IR	벤처기업협회 데모데이	소셜벤처 9곳 · VC 60여 명
NH벤처투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1,000억 원 규모
킨드레드 벤처스	'AI 웨이브: 서울 2026' (11-23)	SBVA·DS증권 공동주관 초청행사

출처: 파이낸셜뉴스·스타트업레시피·한국경제·뉴스파인더 (11-09~10)

4.3 해설: 직접투자의 의미는 금액이 아니라 신호다

엔비디아의 직접 투자는 금액보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자산입니다. 인셉션 프로그램을 통한 GPU 우대·투자자 연결과 달리, 지분 보유는 기술 로드맵의 정합성 보증이자 다음 라운드의 가격 담보가 됩니다. 반도체 4거래일 급락 직후의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하드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수요 확정 장치**로 삼는 구조도 동시에 드러납니다. 창업가에게 실전 함의는 하나입니다. 빅테크와의 관계는 '지원금'이 아니라 **로드맵 정합성 증명**으로 설계될 때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번 주 체크리스트

- [CHECK] 11-13 코어위브 Q3 실적 — 넥클라우드 단위경제의 1차 방증
- [CHECK] 11-18 앤트로픽 가격 결정 — 모델 기업 매출 배수의 기준점
- [CHECK] 11-19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ANT) — 첫 체결가가 AI 밸류에이션의 앵커
- [CHECK] 11-23 'AI 웨이브: 서울 2026' — 국내 딥테크·밸리 네트워크 관측점
- [CHECK] 12-08~09 FOMC — 25bp vs 50bp, AI 자금조달 비용의 기준선

4곳
엔비디아 국내 직접투자 (포인트투·업스테이지·모티프·리얼월드)

1.5억
트리나 파트너스라운지 투자 유치

61억
김해서 창공 PLUS 8개사 투자 유치

1,000억
NH벤처투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9곳
임팩트스타 IR 데모데이 소셜벤처

V. HR: 77 대 39 — 취준생과 기업의 AI 눈높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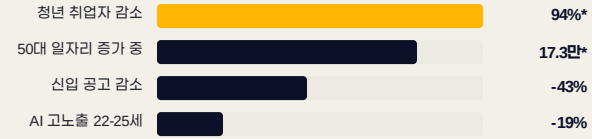
한경협 'AI 시대 신입 인재 역량' 조사(기업 200개사·취준생 500명, 11-10)와 청년 고용 데이터를 겹쳐 읽는다

5.1 기업-취준생 인식 격차 매트릭스

질문	취준생	기업	격차 해석
AI 역량의 중요도	77.0% '중요'	39.0% '중요'	체감 온도 2배 — 기업은 아직 평가 체계 밖
필요 역량 수준	54.8% '고도화'	18.0% '고도화'	3배 격차. 기업 67.5%는 기초·실무 수준
최우선 역량	결과 검증·수정 36.8%	기초 활용 중심	구직자는 검증가를 준비, 기업은 사용자를 찾음
채용 반영 방식	공식 평가 20.0% · 참고 43.0% · 미반영 37.0%		공식 반영 중 '전 직무 필수'는 1% 수준
3년 전망	기업 82.5%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		격차는 단기적으로 확대 방향
중요 역량 점수	데이터 해석 73.9 · 문제정의 73.2 · 비판적 사고 72.5		도구 숙련이 아닌 판단 능력이 축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11-10), 파이낸셜뉴스·브릿지경제 보도

5.2 청년 고용의 구조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4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 28.5만 개 중 AI 고노출 업종 비중(한은). 신입 공고 -43%는 대기업 정규직 신입 공고 전년 대비(캐치 분석). 22~25세 AI 노출 직종 고용 격차는탠퍼드 브리뇰프슨 팀 '탄광 속 카나리아'.

청년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감소, 청년 고용률 44.0%로 29개월째 하락입니다. 25~29세 1,000명당 첫 직장 상용직 입직자는 48명(2014~19) → 45명(2023~26)으로 줄고, 경력 입직자는 102명 →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다리의 첫 칸이 아니라 사다리 자체가** 경력직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5.3 같은 주의 채용 현장 (11-09~10)

주체	이벤트	AI 평가 방식
제너시스BBQ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11-22까지)	서류 → AI 역량검사 → 실무면접
인엑스(가상자산)	AI 네이티브 프로덕트 엔지니어 기획채용	실무 결과물 + AI 코드 검증 역량 중심
국회 산자중기위	'한국형 FDE(현장 배치형 엔지니어)' 예산 증액 논의	AX 양성사업에 양성·일자리 매칭 구조
스탠퍼드·앤트로픽	AI 노출 직종 22~25세 고용 19% 적음 (탄광 속 카나리아)	경력직에서는 격차 없음

출처: 파이낸셜뉴스·충청신문·세계일보·work24 취업뉴스 (11-09~10)

5.4 해설: 평가는 '참고'에서 '공식'으로 넘어가는 중

공식 평가 반영이 20%에 그치지만, 반영 기업의 16%가 '일부 직무'로나마 운영 중이고 BBQ·인엑스처럼 AI 역량검사를 전형 단계에 명시적으로 배치한 곳도 나왔습니다. 기업 82.5%가 3년 내 요구 수준 상승을 예상하는 만큼, **전형의 관문이 채용 후 훈련보다 앞당겨지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취준생의 눈높이(검증·재설계 54.8%)가 기업의 현재 기대(기초 67.5%)를 앞서 가는 구간에서, 실무 결과물 기반 검증 체계가 양쪽의 공통 분모가 됩니다.

실전 시사점 기업의 기대는 '검색·요약'이지만 3년 뒤 요구 수준 상승을 82.5%가 예상한다는 것은, 지금 채용하는 신입에게 검증·재설계 역량을 키워줄 **사내 훈련 인프라가 이미 채용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SkillBridge 같은 실무 역량 검증 체계가 이 격차의 인프라 자리에 놓인다.

VI. 에듀테크 국내: 30억이 빠진 예산, 그리고 움직이는 현장

정책의 시간축(중장기 연구)과 현장의 시간축(즉시 도입)의 격차가 벌어지는 주간이다

6.1 국가AI교육연구센터 예산 30억 원 전액 삭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부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용 예산 30억 원이 빠진 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전자신문 11-09). 이 사업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 행동계획 99개 과제 중 '민·관 협력형 AI교육정책 연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건의된 것으로,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중장기 종단연구를 염두에 둡니다. 건국대 이민석 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교육분과장)는 "AI가 교육·학생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장기간 종단연구가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산업 진흥 예산이 10조 원 이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연구 예산 삭제라는 점이 업계·학계의 쟁점입니다.

6.2 현장과 기업의 움직임 (11-09~10)

주체	내용	의미
전북교육청	AI 리터러시 가이드라인 20개 조문 해설·활용집 전 학교 배포	수업·과제·평가의 AI 허용범위 + 서식 8종
위버스브레인	AI 튜터가 먼저 전화 거는 '맥스AI 뉴스 튜터' 출시	통화 기반 영어 수업, 난이도 자동 조절
아이스크림에듀	홈런에 '문해력완성' 통합 탭 신설	분산된 문해력 콘텐츠의 접근 경로 통합
천재교육	EDUtech Asia 2026서 AI 디지털 교육자료 전시	아시아·중동 시장 파트너 발굴
전일중학교·이티에듀	전교생 14개 학급 NotebookLM 리터러시 과정 완료	출처 검증 → 근거 추출 → 산출물 제작 4차시

출처: 전자신문·교육을 비추다·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조선에듀·에듀플러스 (11-09~10)

6.3 문해력의 재편: 콘텐츠 확대가 아니라 경로 통합

아이스크림에듀는 홈런에 '문해력완성' 탭을 추가해 분산된 문해력 콘텐츠(어학사전·홈런북카페·AI받아쓰기· 교과서실생활 문해력·속담의달인)를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학년별 구성도 나눠 1~2학년은 어휘·속담 기초와 생활 속 지문 읽기, 3~6학년은 어휘 의미와 배경지식 확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신규 콘텐츠 확대가 아니라 **접근 경로의 정리**라는 점이 이번 개편의 본질이며, 교육부의 7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교과 연계 독서수업·집중 학년)과 같은 방향입니다.

6.4 아시아 인프라 경쟁: 교과서 기업의 수출 구조

천재교육은 싱가포르 EDUtech Asia 2026(연사 350명 이상·전시 기업 200곳 이상)에서 교과서 콘텐츠와 AI 기술을 결합한 수업·학습·평가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로컬 데이터 동기화, PC·태블릿·크롬북 호환, 5개 국어 지원, 데이터 보안 체계를 글로벌 인프라 요건으로 내세우고, 싱가포르·인도와 중동·아르메니아로의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교육 콘텐츠 수출의 경쟁축이 **콘텐츠 품질에서 운영 호환성·보안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설 예산 삭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축의 공백**이다. 현장은 가이드라인(전북 20개 조문)과 제품(전화 걸는 AI 튜터)으로 이미 다음 단계에 서 있고, 그 효과를 검증할 중장기 연구 체계는 예산에서 빠졌다. 도입 속도와 검증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실증 데이터를 가진 민간·대학의 역할이 커진다.

VII. 에듀테크 글로벌: RCT의 계절 — 깊이가 넓이를 사는 구조

Google·Eedi 1,179명 확대 RCT(공개 11-07)는 AI 튜터의 수익 구조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7.1 **Google·Eedi 확대 RCT 설계** Preregistered 4-arm RCT, UK secondary schools

측정 지점	표준 보약(통제)	전문가 튜터	AI(문제 맥락)	AI(개인화 맥락)
오류 즉시 재답 정답률	43.4%	57.7%	56.5%	56.9%
근거리 전이(다음 단원 첫 문항)	50.5%	59.1%	58.3%	58.4%
4주 퀴즈 정답률	59.6%	61.8%	62.1%	63.5%
표준화 시험(Star Maths)	기준	-0.09SD	-0.01SD	+0.02SD
완료 학습 유닛(중앙값)	132	77	99	99

[표] 학생 1,179명·10개 영국 공립 중학교·10주, 사전등록 4군 RCT. 부수 발견: 표준 보약에서 남학생이 +0.31SD 앞서던 성별 격차가 세 튜터 조건에서 모두 소멸. 출처: Google LearnLM Team & Eedi 기술보고서(2026). 개발사 자체 보고로 독립성은 제한적

7.2 해설: 근접 효과는 확실, 원거리 효과는 미정

세 개의 튜터 조건(사람 포함)은 모두 오류 교정과 근거리 전이에서 표준 보약을 확실하게 이겼고, AI 두 조건은 전문가 튜터와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준화 시험에서는 어떤 조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설명의 핵심은 **커버리지 비용**입니다. 튜터링 대화에 4~7분씩 쓰면서 완료 유닛이 132개에서 99개로 줄었고, 학습량 자체가 성취의 독립 설명변수였습니다. 즉 AI 튜터의 경제학은 '깊이가 넓이를 사는 구조'이며, 시간 예산이 고정된 교실에서는 **어디에 깊이를 쓸지의 설계**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7.3 한국 현장과의 접점

국내의 1인 1 AI 튜터 논의가 '접근성 확대'에 있을 때, 영국 RCT의 교훈은 냉정합니다. 접근만으로는 표준화 성취가 오르지 않으며, **참여(사용량)와 커버리지 설계**가 관문입니다 (미국 테네시 18개교 2년 RCT에서도 참여율이 결손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에듀테크 기업의 설계 포인트는 모델 성능이 아니라 (1) 대화당 시간 관리, (2) 커리큘럼 커버리지 보장, (3) 교사 개입 지점의 명시화이며, 천재교육의 통합 솔루션·위버스브레인의 전화 수업은 모두 '참여 마찰을 줄이는 배관'입니다.

7.4 세 편의 RCT 비교 — 같은 결론, 다른 지리

실험	규모·기간	근접 효과	원거리(표준화) 효과	관문으로 지목된 것
Google·Eedi (영국)	1,179명 · 10주 · 4군	오류 재답 +13~14%p	-0.01~+0.02SD (통계적 0)	커버리지 비용 (132→99 유닛)
칸미고 (미 테네시, NBER)	18개 중학교 · 2년 군집 RCT	—	학기당 +1.3백분위	참여율 (중앙값 1/3 일수만 사용)
Copilot 튜터링 (나이지리아)	1,328명 · 12회 90분	—	+0.310SD (종합 평가)	교사 주도 + 커리큘럼 정합

출처: Google LearnLM & Eedi(2026), NBER w35620, Education Sciences 16(11):1780. 효과 크기는 측정 단위가 달라 직접 비교가 아닌 구조 비교용

Ⅷ. 전략 시사점: 재가격 구간의 플레이북

돈의 값·허가의 값·부채의 값이 동시에 움직이는 주간, 각 주체의 다음 수는 다르다

창업가

[POINT] 빅테크 직접투자의 실질 가치는 로드맵 정합성 증명이다. 투자 이전에 기술 로드맵 공유 구조를 먼저 설계하라. 금리 상승 국간에는 매출 배수가 아니라 **완성된 일의 단위 경제**(fully loaded workflow cost)를 보여줄 데이터가 밸류에이션의 방패막이다.

경영진·투자자

[POINT] 앤트로픽 상장(11-19)은 모델 기업 할인율의 공개 기준점이다. 공모가 결정(11-18)과 첫 주 체결가를 자사 모델·인프라 계약의 재가격 트리거로 삼아라. 지배구조 리스크(엔비디아 사례)는 이제 대형주 프리미엄의 상수 항목이다.

HR 담당자

[POINT] 채용 공고의 AI 요구 수준(기초 67.5%)과 3년 후 기대(상승 82.5%) 사이에는 훈련 인프라의 빈 공간이 있다. 신입 채용 시 '검증·재설계' 과제를 실전 평가로 넣고, 사내 검증 체계(SkillBridge 유형)를 채용 패키지에 포함하는 것이 격차의 선점이다.

교육·에듀테크

[POINT] RCT 3편의 공통 결론은 '접근이 아니라 참여와 커버리지 설계'다. 대화당 시간 예산, 커리큘럼 커버리지 보장, 교사 개입 지점을 제품 스펙으로 명시하라. 정책의 중장기 연구 공백(예산 30억 삭제) 기간은 실증 데이터를 가진 민간의 기회 구간이다.

실행 함정 3가지

[CHECK] 금리 재가격을 '일시적'으로 치부하고 4분기 자금조달 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 — 50bp 시나리오의 조달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

[CHECK] 지배구조 리스크를 중소기업 문제로 보는 것 — 단일점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는 규모와 무관하게 할인율의 대상이다.

[CHECK] AI 튜터·에이전트 도입을 '접근성 확대'로만 보고하는 것 — 참여와 커버리지 설계가 없으면 표준화 지표는 오르지 않는다.

조직·운영

[POINT] 조직 실증 연구의 공통 분모는 거버넌스다. 대리인 비용 감소(β=.494)와 민첩성(β=.245) 모두 통제·협업 구조의 재편이 매개다. 도입 자체가 아니라 승인·로그·설명가능성 설계가 성과의 변수다.

0.4%	+4.39%	-5.5%	$1.404조	-43%
미 10월 CPI 전월비 (예상 상회)	코스피 11-10 반등률	엔비디아 11-10 낙폭	앤트로픽 최대 밸류	대기업 신입 공고 감소

다음 호 예고 동시 발행: [트랙 2] 학술·연구 인사이트 — 수행에서 협업으로: 에이전트의 다음 시험대 (CONDERI-AR-2026-11-11) · [트랙 3] 포커스 칼럼 5호 · [트랙 4] 콘데리 글로벌 옴니버스 3호 (CONDERI-GO-2026-11-11)

부록: 출처 및 유의사항

Sources and Notes

주요 출처 (발행일 기준 최근 3일 + 직전 주말 공개 자료)

- 미 노동부 10월 CPI / Reuters·Investopedia·MarketScreener 시장 보도 (11-10)
- 연합뉴스·Businesskorea·블록미디어·한국경제신문 국내 증시 마감 보도 (11-10)
- Axios·CNBC(Michael Santoli)·UOB Kay Hian 기술주 반등 분석 (11-10)
- TechCrunch·Bloomberg Law·Fortune·The Guardian·CNBC 앤트로픽 IPO 공시 보도 (11-10)
- 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스타트업레시피·뉴스파인더 국내 스타트업 투자 보도 (11-09~10)
- 한국경제인협회 'AI 시대 신입 인재 역량' 조사 보도자료 (11-10)
- 세계일보·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청년 고용 보도 및 보고서 (11-10, 9월 고용동향)
- 전자신문(국가AI교육연구센터 예산, 11-09)·교육을 비추다(전북 가이드라인, 11-10)·연합뉴스(테크스냅, 11-10)·디지털데일리(아이스크림에듀, 11-10)·조선에듀(천재교육, 11-09)·에듀플러스(전일중학교, 11-10)
- Google LearnLM Team & Eedi 확대 RCT 기술보고서 / NBER w35620(칸미고 2년 RCT) (2026)

유의사항

본 리포트는 공개자료 기반 산업 분석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지수의 11-10 수치는 당일 마감값, 한국 증시는 11-10 마감값 기준입니다. [그림 2]의 요인별 분해와 일부 비율은 공개 보도를 근거로 한 콘데리 추정이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앤트로픽 공시 수치는 수정 S-1 보도 시점 기준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시 발행: 트랙 2 학술 인사이트
협업지능·워크플로 오케스트레이션·조직 실증 연구 (CONDERI-AR-2026-11-11)

동시 발행: 포커스 칼럼 5호
'할인율의 정치학' — 금리와 인허가가 AI를 함께 견제하는 주간

동시 발행: 글로벌 옴니버스 3호
6대 매체 교차 분석 + 전문 차트 4종 (CONDERI-GO-2026-11-11)